



 <http://dx.doi.org/10.20878/cshr.2018.24.1.013>

식용견 문화의 변화와 진화론적 고찰

심순철¹ · 최현정^{2*}

¹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²백석대학교 관광학부

Changes in Edible Culture of Dog Meat and Evolutionary Study

Soon-Chul Sim¹ & Hyun-Jung Choi^{2*}

¹School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Sejong Cyber University

²School of Tourism, Baekseok University

KEYWORDS

Dog meat,
Evolutionary mechanism,
Meme,
Cultural perspectiv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food culture by applying the evolutionary mechanism to the process of forming the dog meat culture. To do this, this study first examined mutation, selection, and replication as a evolutionary mechanism by biological genes and explain the evolutionary process of food culture by applying so-called 'meme' which is a virally-transmitted cultural symbol or social idea. A meme acts as a unit for carrying cultural ideas, practices, that can be transmitted from one mind to another through writing, speech, gestures, rituals, or other imitable phenomena with a mimicked theme.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ntended to use in-depth interviews on how people have diverse cultural perspectives interpret and accept edible culture of dog meat. In Korea, which was a traditional farming society, dog meat which is easier to obtain compare to beef has been chosen as an important source of protein. And this choice has been repeatedly reproduced through generations. However, the current generation's awareness of the edible culture of dog meat has changed. The meme of pet culture has been selected and replicated, and this cultural evolution will eventually lead to the culling of dog meat.

1. 서론

초식동물인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육식동물인 사자는 고기를 먹는다. 반면에 잡식동물인 인간은 특정 종류의 음식만 먹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먹도록 진화하였다 (Pollan, 2007). 인간이 처음부터 잡식이었던 것은 아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두발로 걷는 유인원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여러 종으로 진화했으며,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였다(Allen, 2012). 풀을 주로 섭취하던 식생활에서 과일과 곤충, 그리고 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진화한 인류의 음식문화는 시대별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그 스펙트럼이 무한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인간은 잠재적으로 식용 가능한 무수히 많은 식재료 여기저기에 한계선을 그었다. 그 한계선은 문화마다, 사회마다, 심지어는 개인마다 식문화의 이질성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

* 본 논문은 2016년도 제80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임.

† Corresponding author: 최현정, chj043@bu.ac.kr, 충남 천안시 문암로 76,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호텔경영전공

난다(Rappoport, 2003). 캥거루나 악어 고기를 먹는 호주인, 거미를 튀겨먹는 캄보디아인, 꿈틀거리는 산 낙지를 통째로 씹어 먹는 한국인 등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는 낯설고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식문화의 이질성은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된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문화의 이질성은 금기음식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특정 집단이나 사회가 어떤 음식을 금기시하는 것은 단순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에 대한 첫 시식으로부터 오는 낯섭이라는 심리적 거리감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진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즐겨먹는 돼지고기가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에게는 금기음식이다. 힌두교도들은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즐겨먹는 문어나 오징어가 북유럽인에게는 혐오 음식으로 여겨진다(Jeong, 2008).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종교, 윤리의식 등의 기준에 따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즐기느냐, 꺼리느냐를 판단하는 상황(Kim, 2012)에서 과연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런 따짐의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중심에 개고기 식용문화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즈음 불거진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논쟁은 동물학대, 야만성, 서구인의 문화제국주의, 내국인의 문화국수주의 등으로 그 논점이 확대되었다. 프랑스의 한 여배우가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문화를 정면으로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 국내의 어느 민속학자는 서구 사회가 문명이라는 미명 아래 드러낸 문화제국주의적 편견이라고 치부하면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 역사와 더불어 주변국의 개고기 식용 사례들을 시공간적으로 조망하며 반박을 하였다(Ju, 2002). Ann(2000)은 그의 저서 ‘한국인과 개고기’에서 개고기의 세계화와 더불어 개고기 식용문화는 한국 고유문화이므로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또한 1,500여명의 한국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더니 86%가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Ann, 2000). 이에 반해 개고기 식용문화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하는데, Kim(2009)은 문화적 상대성의 입장에서 개고기 식용문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상대론적 측면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기하면서 개고기 식용은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애완견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용견이라는 전통적 문화가 점차 약화되고 결국엔 자발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Kim, 2002).

개고기라는 식문화의 이질성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서구 문명의 제국주의적 견해도 바람직하지 않고, 자민족의 전통문화만을 미화시키고 무조건 정당화시키려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 인간에게 음식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계층, 민족, 그리고 개인의 차이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Lee, Hwang, Jeon, & Lee, 2010).

국내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치러질 즈음에는 어김없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개고기 식용문화는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찬반양론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문화적 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고기 식용문화의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고기 식용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진화론적 기제를 적용시켜봄으로써 식문화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물학적 유전자를 통한 진화의 기제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진화론적 접근을 적용시켜본다. 또한 진화론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질적인 식문화의 현상을 설명하고, 개고기 식용문화의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지닌 사람들이 개고기 식용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문화, 종교, 윤리적 기준에 따른 의견을 정성적으로 취합 정리하여 적용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의 변화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

진화란 세대를 거치면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유기체의 종이 처음 형태와는 다른 종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Buss, 2015). 가령 예를 들어, 유기체를 구성하는 A라는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A1이라는 유전자로 재조합되고, 돌연변이에 의해 A2라는 유전자로 변이가 발생했다고 치자. 이때 다윈의 자연선택론에 따라 A와 A1이라는 변이들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자연 도태될 것이고, 최적의 변이로서 A2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 선택된 A2라는 변이는 세대를 거치면서 복제를 하게 될 것이다(Mayr, 1997).

앞서 살펴본 A, A1, A2 라는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발생하여 성장하거나 혹은 도태되는 배경을 자연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의식적인 활동에 의한 결과물로 자연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문화는 생물학적 유전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학습이나 모방을 통해 전파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Shennan, 2002). 이러한 문화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Dawkins(2016)는 문화의 변화를 생물학적

진화론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밈(meme)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밈(meme)은 모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mimeme*의 축약어로 마치 유전자가 세포 속에 저장되어 몸에서 몸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과 같이, 문화적 정보의 복제를 통해 뇌에서 뇌로 모방되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문화적 정보의 단위를 지칭한다.

진화가 일어나는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의 변이, 선택, 복제 과정이 밈(meme)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시중에 유행처럼 퍼진 명품가방의 짝퉁 제품처럼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원형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을 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형이 이질적인 문화와 만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돌연변이와 같은 변이도 존재 가능하다. 특정 환경에 적응한 생물학적 유전자 변이가 선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밈(meme) 역시 환경에 적합한 것이 선택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 어떤 문화가 유행처럼 순식간에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선택된 밈(meme)은 복제를 통해 널리 퍼질 수 있다.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수직적으로 전달되지만 밈(meme)은 일면일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수평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Shennan, 2002).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K-Pop은 한국 대중가요의 변이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밈(meme)을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음악과는 다른 K-Pop이라는 변이를 선택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제한 것이다. 이처럼 유전자와 밈(meme)은 정보의 단위로써 변이와 선택과 복제의 기제를 갖는다는 점에서 진화론적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Lee, 2008).

2.2. 식문화의 진화론적 접근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유대인과 이슬람교인들이 돼지고기를 기피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엄격한 유대교도나 이슬람교인은 돼지고기가 조리과정에서 조리 기구에 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일반 식당에 가지 않고 할랄 푸드 인증을 받은 식당에 일부러 찾아 간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구약성서와 쿠란에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 가운데 돼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식품위생법처럼 율법에 의해 엄격하게 문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Chae & Rha, 2013). 구약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돼지고기를 금기음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다. 곧 발굽이 완전히 갈라져 그 틈이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거나 발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leviticus 11:2-8)

한편 쿠란에서도 돼지고기를 다음과 같이 금하고 있다.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고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2:173)

그렇다면 왜 구약성서와 쿠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일까? 그 해답으로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위생학적 설명으로 돼지의 더러운 습성과 불결한 식습관 때문에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했다는 것과 선모충에 감염될 위험 때문에 돼지고기를 금했다는 가설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돼지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고 선모충증이 처음 발견된 것이 19세기 중엽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Jeong, 2008). 반면에, 중동의 생태학적 조건과 환경이 돼지사육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입장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고대 중동지역에서 고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동물은 소, 양, 염소였다. 이들은 반추동물로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풀이나 짚과 같은 섬유질 먹이를 소화시키기에 최적화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주로 섭취하는 곡물을 나눠 먹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고기와 젖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돼지는 잡식동물로서 먹이에 있어서 인간과 경쟁관계에 있었고, 중동지역의 생태학적 조건으로 볼 때 사람이 먹을 것을 돼지에게 나눠주면서까지 사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을 것이다(Harris, 1987).

음식문화의 진화에 있어서 이러한 생태적·환경적·경제적 접근은 문화적 정보 단위로써 돼지라는 밈(meme)을 금기음식으로 선택하였고, 그러한 결과는 복제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종교의 이름으로 특정한 식재료를 기피하도록 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2.3. 개고기 식용 현상과 이유

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인간에게 길들여졌을 것으로 사료되는 동물이 바로 개다(Ha, 2008). 그 시기는 기원전 14,000년보다 훨씬 오래 전으로 추정된다. 처음에 인간이 개를 사육했던 목적은 사냥이라고도 하고, 개고기 식용을 위해 가축화했다는 주장도 있다(Allen, 2003). 오늘날에 와서 개고기 식용은 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개고기 요리가 가장 발달했던 곳은 태평양의 섬나라들과 아메리카 대륙

이었다. 아스테텍족은 거대한 강아지 사육장을 두고, 털이 없는 갈색의 개를 길렀고, 폴리네시아와 하와이에서는 사육장에서 포이(poi)라는 개를 식용으로 길렀다(Allen, 2003).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식용문화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물에서 개의 뼈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미 그때부터 식용을 위해 개를 키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불교의 영향으로 개고기 식용을 기피했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요즘과 비슷했다고 한다(Ju, 2013). 개를 애완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개고기 식용문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이는 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인은 친구와 같은 존재인 개를 잡아먹는 미개인이었다. 서구에서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와 인간과의 친밀감 때문이다. 그들은 개를 인간의 친구로 생각하며, 친구인 개를 잡아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Harris, 1987). 그렇다면 인간이 애완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일까? 뉴기니 사람들은 돼지를 애완동물처럼 집안에서 애지중지 키우지만 암태지고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막상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차 없이 잡아먹는다. 이처럼 인간과의 친밀감이 애완동물의 식용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Jeong, 2008).

한편에서는 애완동물이라서 잡아먹는 것을 기피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Harris(1987)는 유럽인들이 개를 식용하지 않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고기 공급원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그들에게는 소, 양, 돼지와 같은 다른 동물성 식품이 충분하게 공급되므로 굳이 개를 도살해서 섭취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개는 도시화된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불만족스러운 인간관계에 약간이나마 정서적으로 도움을 준다. 반면에 개고기 식용문화가 발달한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어진 자연 환경 자체가 낙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Kang, 2003). 소는 고기의 공급원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육류가 항상 부족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개가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2.4.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점

생물학적 진화론과는 별개로 19세기 후반에 소위 문화진화론자들은 이성이나 합리성의 수준에 따라 민족 집단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평가하였다(Kim, 2002). 문화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며, 모든 사회는 야만(savagery), 미개(barbarism), 문명(civilization)의 세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것이 문화 진화론적 접근의 핵심이다(Han, 2011). 단순 사회 혹은 원시 사회는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문명의 단계에 도

달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당시의 서유럽 사회의 문화가 가장 발달된 합리적 문화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문명이라고 규정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

합리적 문화를 문명이라고 한다면 비합리와 합리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 문화 상대론이다. 다른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파생된 이론적 틀이라고 하겠다(Kim, 2002). 다양한 문화적 차이는 그 문화의 고유한 가치관에 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간혹 문화 상대론적 입장에서 포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를 테면, 뉴기니의 디니 족이 친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 여인들의 손가락 마디를 절단하는 풍습(Heider, 1997)이라든지, 뉴기니의 포레 족의 식인풍습 같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야만적이다(Harris, 1987). 이런 극단적인 문화적 차이를 문화 상대론적 입장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이 속한 문화에 비슷한 문화적 양상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문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문화 상대론이 전략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예컨대, 식용견 문화와 그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사육 방식과 비위생적 도축 과정을 무비판적으로 정당화한다면 이는 올바른 문화적 관점인지에 대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고기 식용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진화론적 기제를 적용시켜봄으로써 식문화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개고기 식용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정성적 연구로써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다음의 5단계를 거쳐 설계하였다(Kim, 2006).

3.1. 연구설계

〈1단계〉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가?

-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즉 내·외국인들이 인식하는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해석.

〈2단계〉 왜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가?

- 진화론적 접근을 통해 개고기 식용문화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3단계〉 어떤 자료들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가?

- 개고기 식용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 아메리카대륙, 프랑스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가진 내·외국인들의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해석과 인식조사.

〈4단계〉 이 자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 관련 연구자료 조사와 실제 국내 거주 외국인과의 인

터뷰.

(5단계)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미국인 1명, 캐나다인 1명, 프랑스인 2명, 중국인 2명, 그리고 내국인의 인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국인 1명 선정.

(6단계) 자료수집기한

- 2014년 10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층면담은 주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된 일련의 질문에 대하여 피면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실행하였다. 이는 면담 가이드가 없이 진행되는 대화로서의 면담 방법이나 자유식 면담이 갖는 비예측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Kim, 2006).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실험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 가설이나 전제 없이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각 문화권의 해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자 하였다(Mason, 1996).

면담 질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첫째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음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둘째는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문화적 정보에 관련된 질문이며, 셋째는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 비추어 개고기 식용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4. 연구결과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피면담자들의 의견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약간 달랐지만, 외국인의 경우에 국적별로 크게 상이하지 않았다. 글로벌화 덕분인지 전체적인 의견은 대동소이했다. 피면담자들에게 있어서 애완견은 가족과 별반 다름없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인으로서 중국과 한국에서 3여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스티븐은 중국 생활을 통해 자신의 문화범주를 뛰어넘는 다양한 음식을 접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개는 친구예요 가족이죠 양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개에 대해서는 감정을 느껴요 서양 문화에서는 개를 죽이는 건 범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양을 죽이는 건 그렇게 생각 안하죠 양머리 고기가 약간은 혐오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양머리 고기는 먹겠지만, 개고기는 절대 안 먹을 거예요 (Steven Farrell Diamond, American, 34 years old)

개고기 식용문화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변 한국인 친구들 중에 먹는 사람이 없어서 문화적으로 체감하

지 못했다는 캐나다인 비비안은 스티븐과 마찬가지로 개고기 식용문화를 선택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모든 한국인이 개고기를 즐겨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 중에는 개고기 먹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개고기가 한국음식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 언젠가는 한국인도 개고기 먹는 것을 스스로 중단하지 않을 까싶네요 (Vivian Slezac, Canadian, 28 years old)

식재료로서 개를 취급하는 문화권으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의자의 다리 빼고는 모두 다 먹어치운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런 중국인에게도 세계화 바람은 비껴나가지 않았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스스로 혐오스럽다고 느끼는 음식은 거부하였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장런과 주청문은 중국의 10~20대 젊은이들 중에 일부러 개고기를 찾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중국에서 개고기 먹는 것은 신기한 일은 아니예요 우리 아빠도 드시고,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개고기 먹는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고기인줄 모르고 먹는다면 먹을 지도 몰라요 하지만 개고기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 안 먹을 거예요 (Ryun Jang, Chinese, 22 years old)

세상에 개고기 말고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구지 좋아하지도 않는 개고기를 일부러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개고기 안 먹어요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 중에 개고기 먹는 친구는 없어요 (Chong-moon Ju, Chinese, 22 years old)

피면담자들 중에 가장 한국 문화에 호의적인 프랑스인 가톨릭 사제, 장은 개고기 생산 과정의 비위생적인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식용문화 자체에 대해 타문화권이 비난할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그 문화를 선택하고 복제하는 것은 결국 그 문화의 구성원 몫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 것과 프랑스인이 말고기를 먹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저도 한국에서 개고기를 맛보았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개고기를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을 비난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개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지 문화 자체에 대해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Jean Gautron, French, 72 years old)

농경문화에서 소고기보다는 개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개고기 식용문화가 발달하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반대로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기존에는 먹지 않던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1870년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프로이센군에 포위되었을 때 파리 사람들은 개고기, 고양이고기, 쥐고기, 말고기 등을 먹으며 연명하였고, 개고기와 고양이고기를 파는 정육점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고 전해진다(Miguel, 1993). 1910년경에는 개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파리에 문을 열었다는 사진과 기사가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적이 있다(Sim, 2006). 이에 대해 프랑스인 쥘리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리에 개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마 당시의 경제상황 때문이었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테니까요. 만약 개고기가 맛이 있고 먹을 만 했다면, 지금 더 활성화되고 많이 팔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걸 보면 거위간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식문화에서 거위간은 분명 개고기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Julien Herisson, French, 28 years old)

쥘리앙의 말대로 전쟁이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지고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었을 때 생존과 번식을 위해 기존에는 먹지 않던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음식문화로 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응했던 외국인들 중 프랑스인 장을 제외한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을 상황이 되어도 개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편,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개고기를 먹어본 기억으로 인하여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경우도 있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식 없이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처럼,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접한 식단에는 쉽게 적응하게 된다는 이치이다(Allen, 2012).

개고기를 일부러 찾아 먹진 않지만 뒷사람이나 동료가 먹고 하는데 굳이 싫다고 다른데 가진 않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소고기라고 하시면서 주셔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맛이 좋아서 그 이후에도 종종 먹었었어요. 그래서 개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거 같아요. 지금 저도 애완견을 기르긴 하지만, 식용개와 애완견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Dong-Whan Park, Korean, 40 years old)

독일의 철학자 디트리히 폰 엔겔하르트는 음식문화를 개인이 속한 문화의 범주 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미각 취향의 유형이라고 정의하면서 만약 그 유형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면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Mühl & Kopp, 2016). 어린 아이가 땅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어먹으려고 하면 그런 건 먹는 게 아니라고 꾸짖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꾸짖음을 받은 아이는 더 이상 땅에 떨어진 것을 주어먹지 않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이 속한 문화의 범주 안에서 미각 취향은 형성된다. 사회적 학습 경험을 통해 이미 형성된 미각 취향에 새로운 식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음식을 인식하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이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범주 내에서 형성된 미각 취향만을 고수하게 되는 것이고, 범주를 벗어나는 음식에 맞닥뜨리게 되면 혐오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5. 결 론

인간의 잡식성은 인간이 다양한 생물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진화한 인간에게 있어서 식문화의 형성 과정은 각 개인이 속한 문화, 사회, 지역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식문화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적 영향에 의해 어떤 음식은 먹을 것이고, 어떤 음식은 안 먹을 것인지를 선택하였다. 처음에는 안 먹던 음식도 개인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시간이 흐른 뒤 먹게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어릴 때 식습관과 어른이 되어서의 식습관의 차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식생활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진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진화해왔다. 인간의 정보를 담은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 위해 환경에 맞도록 변이하였고, 자연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은 유전자는 선택되어 세대를 거치면서 복제되었다(Mayr, 1997). 이러한 진화적 기제의 정보 단위인 유전자라는 개념을 문화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Dawkins(2016)는 밈(meme)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문화적 진화 과정을 설명하고,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식문화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개고기 식용문화가 형성된 과정과 돼지고기 금기문화가 형성된 과정을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경우, 주변에서 소고기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개고기라는 밈(meme)을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택하였고, 이러한 선택은 세대를 거듭하여 복제되었고, 개고기 식

용문화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반면에 잡식동물로서 인간과 먹이 경쟁 관계에 있던 돼지라는 밈(meme)은 중동지역의 생태학적 조건으로 볼 때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금기음식으로 선택되었고, 종교적 금기음식으로 널리 복제되어 하나의 식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밈(meme)이라는 개념을 통한 식문화의 변이, 선택, 복제되는 일련의 진화론적 설명은 식문화의 과거와 현재의 고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식문화의 변화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은 문화적 정보 단위로서 밈(meme)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습과 모방을 통해 복제를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앞서 진행된 피면담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개고기 식용문화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의 시각은 문화상대론에 입각하여 개고기 식용문화 자체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자문화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단호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다. 서양인들에게 개고기는 단순한 혐오식품이라기 보다는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 자체이다. 이는 개고기 식용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 중국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반응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개고기 식용에 대한 호불호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혹시라도 모험심 강한 어떤 서양인이 자신의 용감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개고기 먹기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단순한 하나의 시도일 뿐이고 문화적인 받아들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린 시절부터 접하게 되는 음식문화가 아닌 이상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적 목표의 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문화의 범주 내에서 길러온 자신이 미각 취향을 벗어나는 음식을 기꺼이 먹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는 식문화로서 개고기는 그 명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애견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요즘의 상황으로 볼 때 개고기 식용문화라는 밈(meme)보다는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밈(meme)이 훨씬 지속적으로 복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피면담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개고기 식용문화가 완전 도태되는 시기는 한 세대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새로운 식문화의 변이가 등장할 것이고, 선택될 것이다. 어쩌면 이미 그 변이는 진행 중일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하는 애벌레, 메뚜기, 흰개미 같은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등장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한계선 여기저기를 누비고 있다는 사실은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문화적 진화를 생물학적 진화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즉, 무계획적이고 무작위적인 유전적 과정을 문화의 진화를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Rolston, 1999). 유전자의 변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밈(meme)의 변이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와 밈(meme)이 공통적으로 정보의 단위로서 변이와 선택과 복제의 기제를 갖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용시켜 보았다. 향후 비슷한 관점에서 거위간 혹은 오리간으로 불리는 프아그라(foie gras)의 식용문화에 대해서도 진화론적 고찰을 통한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REFERENCES

- Allen, S. J. (2012). *The omnivorous mind: our evolving relationship with food*. Harvard University Press.
- Allen, S. L. (2003). *In the devil's garden: a sinful history of forbidden food*. Random House Digital, Inc.
- Ann, Y. G. (2000). *Koreans and dog meat*. Seoul, Korea: Hyoil.
- Ann, Y. G. (2000). Korean's recognition on edibility of dog meat.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13(4), 365-371.
- Buss, D. (2015).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Psychology Press.
- Chae, Y. C. & Rha, Y. A. (2013). A study on the ancient israelite food 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9(3), 234-247.
- Dawkins, R. (2016).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 Ha, J. H. (2008). *Story of dog*. Seoul, Korea: Salim.
- Han, S. B. (2011). *Cultural anthropology*. Seoul. Kor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 Harris, M. (1987). *The sacred cow and the abominable pig: riddles of food and culture*. Simon and Schuster.
- Heider, K. G. (1997). *Grand valley Dani: peaceful warrior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Jeong, H. J. (2008). *Why do not eat that food*. Seoul, Korea: Salim.
- Jeong, I. S. (2003). Dog meat and pet. *With Companion Animal Practice*, 1(4), 76-77.
- Ju, G. H. (2002). *Dog meat and cultural imperialism*. Seoul, Korea: Joong-ang M&B.
- Ju, Y. H. (2013). *Korean food culture history*. Seoul, Korea: Humanist.
- Kang, D. W. (2003). A study for advancing into European market of Korean cuisine &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cuisine culture and European cuisine culture.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9(3), 88-101.

- Kim, S. H. (2009). An essay against selling dog meat.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46, 47-69.
- Kim, W. S. (2002). The dog meat problem is our fault. *People & Ideas*, 1, 204-208.
- Kim, Y. C. (2006). *Qualitative research*. Seoul, Korea: Moonumsa.
- Kim, Y. W. (2002). The limitations of culture relativism and cultural criticism of dog-eating. *Studies in Humanities*, 10, 339-354.
- Lee, H. G. (2008). An evolutionary explanation model of cultural chang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94, 83-108.
- Lee, H. S., Hwang, J. S., Jeon, H. M., & Lee, S. B. (2010).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of Korean culture in Korean restaurant on foreign residents in Korea.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6(4), 64-75.
- Mason, J.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Sage.
- Mayr, E. (1997). *This is biolog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Miguel, R. (1993). *Histoire des Festins Insolites et de la Goinfrerie*. Artulen.
- Mühl, M. & Kopp, D. (2016). *Die Kunst des Klugen Essens: 42 Verblüffende Ernährungswahrheiten*. Hanser.
- Park, J. G. (2015). Cultural relativism on the cultivation of dog meat: Conflict between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exclusivit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78(3), 675-685.
- Pollan, M. (2007). *The omnivore's dilemma*. Bloomsbury.
- Rappoport, L. (2003). *How we eat: Appetite, culture, & the psychology of food*. ECW Press.
- Rolston, H. (1999). *Genes, genesis, and God: Values and their origins in natural and huma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o, E. G. (2014). *The origin of happiness*. Seoul, Korea: 21st Books.
- Sim, S. C. (2006). *French gourmet travel*. Seoul, Korea: Salim.
- Shennan, S. (2002). *Genes, memes and human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 Spiro, M. (1990). *On the strange and the familiar in recent anthropological thought, in cultural psychology*. Stigler, J. et al.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년 01월 09일 접 수
 2018년 01월 23일 1차 논문수정
 2018년 01월 24일 논문 게재확정